

정부, 구미 불산가스 피해 조사

9개 부처 포함 26명 조사단 구성 ...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9월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10월5일 구미에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재난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부 등 9개 부처 23명과 민간전문가 3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구미시청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고 현장과 산동면 봉산리 등 인접지역을 조사했으며, 10월7일 까지 주민 인명피해, 환경오염 실태, 농·축산 피해, 근로자 피해, 산업단지 안전관리 실태·피해 등을 조사한 뒤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10월9일께 토지오염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난합동조사단 김종열(소방방재청 예방총괄과장) 부단장은 “정부는 피해접수 내용을 현장 확인한 후 구미시의 복구능력과 휴브글로벌 책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5>